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역사 조성 '시동'

"혁신을 통해 전주문화예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백옥선 대표이사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신규 사업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의 발달과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의 생산과 유통구조가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어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지역예술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의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사업은 폐지하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주시 문화복지정책과와 연동되는 복지사업을 개발해 예술인 복지가 실현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예술대학 커리큘럼을 평생학습시스템으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선진모델 제시

우선 재단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 설립으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선진모델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팔복예술대학'을 설립해 기존대학에서 사라진 예술대학의 커리큘럼을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전환, ▲배움과 창작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지원환경과 지역예술가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 ▲전업 예술인들의 사회진출을 이끌 수 있는 활동지원과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재교육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팔복 유튜브 대학'도 운영함으로써 언택트 사회에 부응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문화예술 영재의 배출을 목표로 젊은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전문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산실과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생애주기별 평생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 ▲더 나아가 팔복예술대학은 문화예술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써 예술의 생산과 유통이 일어나는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전초기지로서 중심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주문화예술 디지털 플랫폼 가동

둘째로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서 '전주문화예술 디지털 플랫폼' 가동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이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인류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사회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서 대중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기초예술을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문학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등 SNS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할 수 있는 기술투자를 통해 지역예술가들에게 근본적인 탈출구 전략을 세워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초예술과 IT 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혹은 혼합현실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예를 들어 작가 작업실, 실감 미술관, 가상 공연장, 공연영상 제작, 랜선 콘서트 등)을 통해 디지털 컨택트 시대에 부합한 예술콘텐츠 구축이다. 예술유통도 소셜 마케팅의 활성화와 향유자의 마케팅 파워 증대에 의한 마케팅 정보의 다양화, 프로슈머의 마케팅 전략, 컨버전스 마케팅 등을 활용한 공격적 온라인 유통망 구축 등 재단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추진방법을 밝혔다.

기초예술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에 투자

셋째, 지원에서 투자로 기초예술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통 투자 사업이다.

코로나19 등 지속적으로 창궐하는 전염병에 대해 우리 사회 내부에 항체를 만들고, 디지털 혁명이라는 트랜드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존의 지원사업이라는 수동적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라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전주문화재단 임직원들이 한자리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지역예술가 재교육 시스템 구축 등
> 新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모델 제시
> 기초예술·IT기술 접목 콘텐츠 개발
> 중앙·광역재단에서 지원 받은 작품
>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등에 투자
> 그린작가운동·풀뿌리 문화터 육성도

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 컨설팅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창작작품이 아닌 기 발표된 작품 또는 중앙과 광역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AR,VR등)와 유통 분야 (유튜브, 드라이브스루, 자동차 극장등)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언택트(Untact) 시대에 전주지역의 예술가내지 예술단체가 대중들의 욕구에 부합한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과 이로 인해 초연결·초고속사회로 연결돼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널리 알리게 됨으로써 지역이라는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글로벌 문화예술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재단은 그린 르네상스(green renaissance)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신종바이러스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그동안 예술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유되어 왔다. 이는 지구 환경오염에서 비롯되는 각종 재앙과 질병 극복을 위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환경운동을 통해 예술과 자연은 인간과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게 됨으로써 지구환경의 보호와 문예부흥을 동시에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린작가운동으로서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 유도, ▲그린작가 후원운동으로서 그린작가들에게 기업의 후원과 시민들의 후원을 적극 독려,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그린 르네상스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후원시스템 구축, ▲그린작가 디지털 넛지운동으로 그린작가 디지털 넛지운동은 종래의 고비용 저효율의 천편일률적 정책 캠페인 풍조 개선, ▲예술환경운동을 디지털이라는 자연스런 매체를 통해 개입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환경운동 전개하는 것이다.

풀뿌리 문화터를 키운다… 문화공간 네트워크 윈-윈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풀뿌리 문화터 육성을 위한 문화공간 네트워크 윈-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과 재단 그리고 예술인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기존의 소규모 예술공간과 작업실을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재단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풀뿌리 문화예술의 육성과 예술가들의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과 지역의 문화공간 그리고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상생과 윈-윈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실천함으로서 경쟁력 확보와 지역통합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편집위원회 창립

**전주매일 편집위원은 전주매일신문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립 경과 보고

○ 2019년 10월 4일
대표이사 위원회 발족 승인
○ 2020년 4월 22일
백송회관에서 발기인 회의
68명 동의 회의 개최
○ 2020년 5월 27일
백송회관에서 창립총회 개최
51명 참석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승인

〈제1대 위원장: 권 순 태〉
● 부위원장(1차): 강정원, 김종철 박이규, 백현규 정원선
● 감사: 장순식, 김종원
● 총무: 고 석
● 재무: 김하나

위원장: 권 순 태

편집위원회 회의

NO	성명	소속	직책
1	강경호	전주시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위원장	
2	강정원	봉숭아학당 전주웃음교실 학장	부위원장
3	강주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장	
4	경재웅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학과장	
5	고 석	전주시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역임(자영업)	총무위원
6	고병수	거명건설 대표	
7	고상철	(유)승우엔지지어링 대표	
8	고영선	김제로타리클럽 회장 / (유) 상우 대표이사	
9	곽영수	변호사(곽영수 법률사무소)	
10	권미진	차밍뷰티스쿨원장(미술시랑 행꿈마단장)	
11	권순태	새시대한국노인회 전북총회장	위원장
12	김경민	Frontier ENG 대표	
13	김광일	도레미수피부과 원장	
14	김복자	새싹어린이집 원장	
15	김성곤	전북장애인 이·미용봉사단장	
16	김수철	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회장	
17	김양옥	전주매일 부사장(스피치 전담교수)	자문위원
18	김영체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감사	
19	김종갑	임실치즈&식품연구소 경영본부장	상조위원
20	김종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실군회장	
21	김종원	김종원 법무사 대표	감사
22	김종철	전, 도의원 / 대한주택관리(주) 대표이사	부위원장
23	김하나	우리카드 전주지점장	재무위원
24	김현성	유니베라 삼천점 대표(열리소리 회장)	
25	김황철	부부식품 대표이사	
26	김회수	KCC 전주공장 고문	
27	노정철	승화건설 대표이사	
28	문상욱	(주)쏠라문 대표이사	
29	박명용	전, 전북도청 관광과장	
30	박병용	황앤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31	박부철	전북공업사 대표(가수)	
32	박순욱	군산대 평생교육원(시낭송) 교수	
33	박영근	전주매일 전무	간사
34	박이규	(주)다함홀딩스 회장(대표이사)	부위원장
35	백금녀	우석대 평생교육원(아람장고) 교수	
36	백현규	백송회관 대표 (전, 시의원)	부위원장
37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자문위원
38	서정우	방송인(전문MC)	
39	송현종	성가신협 이사장	
40	양현섭	꿈드래장애인협회장	
41	유미숙	헤어터치 미용원장	
42	유창엽	하나로마트 정관장 대표	
43	이경종	벽성자동차운전학원 대표	
44	이광성	한국투자증권 전주센터 차장1	
45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회장	
46	이명철	동아메디타운 대표	
47	이상민	마인플라워 대표 (화원)	
48	이세종	예원사 대표 (인쇄출판업)	
49	이수정	가수(한국연예예술인연합회 전주시부회장)	
50	이승석	유아주유소 대표	
51	이영식	전, 부안군평화통일자문위원회장(부안 강냉주 회장)	자문위원
52	이오순	(주)이삭 대표이사	
53	임문옥	공인중개사	
54	임채옥	수도광고사 대표 (전, 옥외광고협회 전북회장)	
55	임철홍	한빛안과 실장	
56	장성태	민족통일전주시협의회장 (태영기술공사 대표이사)	
57	장순식	(주)경동타올대표, 한국승마협회 전북전무이사	감사
58	전안근	마이산건강원 대표(강사)	
59	정원선	(전)주민자치위원회 회장 / 개성삼계탕 대표	부위원장
60	조석기	금성개발 대표이사 (체육단체장)	
61	조은광	한화손해보험 수석팀장(전문가)	
62	최준호	진영테크 대표	
63	탁정실	대광칼러박스 대표	
64	하헌성	모두투어 훼밀리여행사 대표	
65	홍종철	바르게살기운동 전북도협의회장	
66	홍현주	고구려한복 대표	
67	황인두	(주)전흥 대표이사	